

행복한 대한민국은 안전한 일터에서 시작

국토교통부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기시윤 사진 박기현

국토교통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 삶 최접점에서 국토의 효율은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파수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소임.
소임 앞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안으로부터 탄탄한 안전보건이다. 국토교통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문을 두드린 까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일이었다.

운영지원과 선기운 팀장(사진 오른쪽)과
전병철 주무관(사진 왼쪽)



국토교통부 소속 28개 기관,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버스·택시·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이다. 그중 도로·항공·철도 등 중대시민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가 안전보건 부문 콘트를 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반면 공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 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은 운영지원과 용역으로 시작됐으며, 국토교통부 소속 28개 기관의 모든 공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행정기관의 촉각이 곤두섰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갖추고,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안전보건 지침을 정비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운영지원과 전병철 주무관은 내부 인력만으로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다 보니, 외부의 따끔한 조언이 필요했다고. 컨설팅은 그야말로 전방위에 걸쳐 실시됐다. 6개월 간 도로보수·운영 제한단속·청소·조리·경비 등 국토교통부 소속 모든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자의 작업환경이 분석됐으며 가능한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정됐다.

전방위에 걸쳐 실시된 컨설팅 현장에서 답을 찾다!

컨설팅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 가장 위험한 직종은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보수원으로 확인됐다. 총 600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일반국도(14,175km)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도로 포트홀 보수, 교통사고 잔해 및 낙하물 수거, 로드킬 처리, 안전시설 설치, 불법 시설물 철거, 잡목 제거, 여름철 수해복구, 겨울철 제설작업 등 이처럼 어렵고도 위험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업 과정에서 교통사고, 추락, 기임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하도록 돕는 것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역할. 이를테면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시 사고 알림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추락 예방을 위해 잔해물 적재 방법을 기존 8단에서 5단으로 바꾸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하루 교통량과, 차로수(2~8차로)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분석됐으며, 현장 안전 5분 조회 생활화 등이 권고됐다.

“28개 소속기관을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살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보여주었죠. 또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눈에 띄지 않는 유해위험요소도 분석해주었습니다. 중간 보고, 설명회 등으로 개선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운영지원과 선기운 팀장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며, 덕분에 전국 28개 소속기관 각 안전보건담당자들 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전병철 주무관





선기운 팀장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일터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향해!

안전보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다짐은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비전 및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의무사항 11개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 시행해야 할 안전보건 증진시책 11개를 마련한 것인데, 증진시책에는 안전 자율 제보 시행을 비롯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구성원 보호, 구성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적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도 대폭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중심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안전보건 의무사항 및 증진시책에 협회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를 보완해 나간다면,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병철 주무관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업무 공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내실이 탄탄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일터’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이다. 🗣️

한눈에 보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컨설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및 대응계획 수립

컨설팅 대상 국토교통부 소속 28개 기관

컨설팅 기간 2022. 9. 27. ~ 2023. 3. 25.

컨설팅 내용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의무사항 정립 등

위험요인 개선 사례

